

완도군, 숲·바다 아우른 체류형 힐링 생태계 구축

12월 13일까지 '해안치유의 숲'서 '해수 온열 치유실' 프로그램 운영 혈액 순환·스트레스 해소 등 탁월

완도군이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무대로 산림 치유와 바다의 생명력을 결합한 독창적인 '해수 온열 치유실'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수요 선점과 체류형 힐링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정정 해역의 해수를 활용한 온열 치유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설 보강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해 방문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약산면 해동리 일원에 조성된 약

산 해안치유의 숲은 숲과 해변이 맞닿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이곳에 마련된 해수 온열 치유실은 약산 바다의 맑은 물을 끌어올려 정화한 뒤 따뜻하게 데워 반신욕 등을 즐길 수 있는 핵심 특화 시설이다.

해당 온열 치유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강력하게 촉진하고 관절염·근육통 완화는 물론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 개선과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입욕을 넘어 해수 온열 치유와 숲길 오감 산책·풍경 명상·손 마사지·다도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가족·친구·동료 등 소규모 단위 방문객들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신을 완벽히 회복하도록 정밀하게 설계했다.

특히 숲길 산책 후 전복·다시마·살갭류 등 지역 대표 식재료를 직접 활용해 '빙그레 바다 쌀



완도군이 청정 해역의 해수를 활용한 산림과 해양이 어우러지는 온열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진은 약산면에 있는 해수 온열 치유실 모습. <완도군 제공>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세

움을 제공한다. 여기에 붉은 등백 숲길·임도 걷기·바다 조망

명상·해변 맨발 걷기 등 주변 자연 지형을 극한으로 활용한 저강도 유산소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해 체류형 관광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켰다.

프로그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이용료는 개인 5천원~1만원, 단체 4천원~8천원으로 책정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들 기점으로 군은 단순한 숲 체험을 뛰어넘어 산림과 해양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완도만의 독보적인 융복합 치유 모델을 완성할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참여 대상과 유형을 세분화해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 해양치유산업과 긴밀하게 연계해 완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체류형 힐링 성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조선통신사선' 선배

전국항서 선상박물관·승선 체험 등

149급 선박...해양유산 가치 확산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화성 뱃놀이 축제에 실물 크기로 재현한 전통 외교선 '조선통신사선'을 투입, 생생한 해양문화유산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우리 전통 조선기술의 우수성 알리기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5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전국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현장에서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다채로운 선상박물관 및 승선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해당 조선통신사선은 지난 2018년 완벽하게 복원된 149급 대형 목조 선박(길이 34.5m·너비 9.3m·높이 5m)으로, 지난해 일본 오사카항 입항에 성공하며 국내외에 우리 항해 문화의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번 축제 참가를 위해 지난 15일 목포 해상

제류장에서 무사항해 안전지원식을 치른 뒤 서해 뱃길을 거쳐 전국항에 입항,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사진>

행사 기간 선상박물관에서는 조선통신사선 재현 과정과 한·일 뱃길 항해 기록, 판옥선 복원 연구 성과 등을 다채로운 영상과 전문 해설 콘텐츠로 밀도 있게 풀어냈다.

이와 함께 하루 2회씩 총 8회에 걸쳐 450여명의 시민이 직접 승선에 실제 항해를 체험하고 선상에서 전통문화 공연까지 만끽하는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해양교류 역사 교육의 장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계자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재현한 조선통신사선을 평화의 상징물로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道 우수기관 선정

신안군은 "최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복지 체계를 완벽히 안착시키며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유공' 전남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간 총출연 연계를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주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지자체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됐다.

해당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

낼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으로, 앞서 지난 3월 14개 전 읍·면에 전담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벽했다.

매월 2회에 걸쳐 전문적인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현장 밀착 케어를 제공해 수혜자들의 압도적인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신안=양훈기자

해남경찰, 장마철 대비 재난 취약지 선제 점검

해남경찰서는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재난 취약지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과 대형 공사장·침수 우려 도로 등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 20여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취약 지

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즉각 통보해 본격적인 장마 전 신속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미영 경찰서장은 "재난 관리는 사후 대책보다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모니터링을 총출력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군 "일상에서 텃밭 키우는 체험 즐겨보세요"

병영면서 '한골목 초록씨장' 개장

'나도 식물화가' 등 콘텐츠 체험도

강진군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과 정원 공간을 활용한 이색적인 주민 참여형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병영면 한골목 텃밭 정원 일원에서 '반짝시장·병영 한골목 초록씨장'을 개장·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일상적인 생활권 공간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직접 체험한 뒤 쿠폰을 받아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참여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병행했다.

행사장에서는 텃밭 정원 콘텐츠를 심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이 마련되며, 텃밭 식물 이름표를 꾸미는 '식물 이름표 꾸미기'를 비롯해 식물물 직접 관찰하고 그려보는 '나도 식물화가', 절기(소만)를 주제로 한 만들기 활동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체험 후 획득한 쿠폰은 나물 주먹밥·새콤달콤 음료·수제 여성초 비누 등으로 교환할 수 있

으며, 행사장 곳곳에는 식물 패브릭 포토존·꽃 숲 갤러리·반짝 도서관·아쿠스틱 라이브 공연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함께 펼쳐졌다.

이와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로컬셀러도 모집했다. 소품·공예·농산물·허브 등 판매·체험 운영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셀러는 행사 당일 전용 부스를 통해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일상 공간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방문객이 한 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며 "행사 참여는 물론 로컬셀러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무안군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최근 서울 영등포농협 신길지점에서 무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무안 양파 소비촉진 상생 캠페인'을 열고 판촉 행사에 나섰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수도권 직거래로 양파 소비 촉진 '총력'

영등포농협 등 연계...가격 회복 도모

무안군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대도시권 직거래와 파격적인 온라인 할인 기획전을 추진하며 양파 소비 촉진과 산지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영등포농협 신길지점에서 무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무안 양파 소비촉진 상생 캠페인'을 열고

무안산 양파 100t을 수도권에 직거래로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저장기간이 짧은 조생종 양파의 수급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등포농협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하나로마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전개해 해당 물량을 전량 소비할 계획이다.

산지 물량의 선제적 시장 격리와 함께 온라인

을 통한 판로 확대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존에 진행 중인 30% 할인 행사에 이어, 오는 29일까지 군 공식 소포장 '맛뽕무안물'을 통해 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의 '양파 50% 반값 기획전'을 병행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도시와 농촌이 협력해 산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모범 사례"라며 "대도시권과의 농산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내달 5일 진도 '백조호수공원 봄꽃 행사' 개막

사흘간 나리방조제 등서

진도군은 백조호수공원과 나리방조제 일원에서 대규모 봄꽃 행사를 열고,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백조호수공원 봄꽃 행사'가 다음 달 5~7일까지 사흘간 펼쳐진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오는 6월 7일까지를 봄꽃 나들이 기간으로 지정하고, 나리방조제(3.2km)부터 백조호수공원(1.2km)까지 이어지는 오색 만발 꽃길과 꽃단지 체험장을 개방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본 행사 기간에는 넓은 행사장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꽃길 관광 버스를 비롯해 버블쇼·마술쇼,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과도한 인공 무대 설치나 형식적인 의전을 과감히 생략하고, 그늘막 쉼터·긴 의자·이동식 화장실 등 실질적인 관람 편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연과 꽃이 중심이 되는 진도군의 새로운 대표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다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원기자